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바보’가 아름다운 까닭

지역주의 타파와 서민중심의 경제, 남북의 평화공존을 지향한 정치개혁을 어렵게 실천했지만, 퇴임후 정치보복성 표적 수사에 휘말리자 온몸으로 항거한 故 노무현 前대통령. 당신의 수많은 별명 중에 바보가 가장 마음에 든다면 그가 서거5월 23일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바보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있다.

“눈앞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니가 이기적인 행동만 나오고... 어쨌든 그냥 바보하는 게 좋아요.”

생전의 육성 그대로 ‘바보 노무현’이란 문구가 방송과 인터넷을 도배하고 이제는 추모의 분위기도 식어가고 있지만, 나도 바보처럼 살겠노라고 발언한 국민이 적지 않다.

이러한 ‘바보 신드롬’은 2월 16일 선종한 또 다른 바보, 故 김수환 추기경이 불러일으킨 나눔과 봉사의 열풍에 이은 두 번째다. 국민들이 이처럼 ‘바보’에 목말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반증이다.

어느 종교 보다 깊은 예도를 표하고 추모 열기에 휩싸인 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전통적으로 분별심과 알음알이가 치성한 지해종사(知解宗師) 보다는 바보처럼 무심한 도인(無心道

士를 존중해 왔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당나라 때의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이다. 뒷날 한산은 문수보살,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됐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언행을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멸시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험한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가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한산이 습득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웃고 깔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습득이 대답했다. “참고 양보하고 내버려두고 회피하고 견디어 내고 그를 공격하고 그와 따지지 않으면, 몇 해 후에는 그들이 그대를 보게 되리라.”

백척의 절벽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딛기 전, ‘살과 죽음이 모두 한 조각 자연’이니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유연한 바보대통령, 세속의 관점에서는 비운의 정치가이겠지만, 생사가 돌이 아닌 도리를 체득하고 끝까지 동체대비의 교훈을 국민에게 남긴 그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저자거리에서 남몰래 보살행을 실천하다 간 무수한 도인들처럼 숨이 넘어갈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자연공원법 개악 반대”

조계종 본말사 주지 통도사에서 7월 2일 결의대회

조계종 스님들이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자연공원법 개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법장)은 최근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시행하던 본말사주지연수를 7월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이번 본말사주지연수 일정 변경은 종단 중요사인인 자연공원법에 대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함”이라면서 “본말사주지연수 마지막날인 2일 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서 조계종 스님들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개정과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관련해 종단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장적스님·총무원 기획실장)는 6월 3일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장적 스님은 “현 정부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있다”며 “자연공원법과 전통사찰법 등 다중 규제에 따른 사찰관련 법령을 (가칭)문화재보호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종단의 취지”라고 말했다.

부위원장 현은 스님은 “본말사주

지결의대회는 (자연생태계 보존 위주) 국가정책에 의해 삼보정재의 자주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를 그치고자 계획했다”며 “청와대의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례적으로 4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 불참했다. 지관 스님의 불참은 대정부 항의의 성격이 강한 본말사주지결의대회와 함께 조계종이 정부에 갖고 있는 불신의 폭을 가늠케 한다.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는 지관 스님을 대신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사표 ‘반려’

“임기말 레임덕 시작됐다” 우려 자아내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최근 “기획실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과정에서 총무원장스님과 부장스님들에게 허위보고한 것이 밝혀져 원장스님이 대응했다”는 소문이 있는 후, 6월 3일 기획실장 장적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일 개최한 종무간담회에서 이번 부·

실장 스님들의 일괄사표에 대해 모두 반려했다.

허위보고 의혹 등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돼 취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기획실장 장적 스님 사표까지 반려됐다.

부·실장 스님들의 전체 사표 반려는 밖으로는 자연공원법 개정 등 대정부 업무가 산적해 있고, 안으로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을 막으려는 지관 스님의 결단으

조동섭 기자

제18세 증정에 혜초 스님 재추대

태고종, 6월 1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는 6월 1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11회 원로회의를 열고 태고종 제18세 종정으로 현 종장인 혜초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태고종정 혜초스님.

이날 종정추대 회의는 원로의원 23의를 마친 후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은 “종정예하의 재추대를 계기로 종단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 전 종도가 대동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혜초 대종사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부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수행자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는 원로의원 23명중 19명이 참석했으며, 중앙종회 5선(7·8·9·10·11대) 의원이며 전남 금문사 주지인 지해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이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승려 사유재산 종단 귀속령” 지지

대종결사, 지지성명 발표

“대종결사는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지지하며, 종단의 승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일체의 사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정승가를 위한 대종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종결사는 6월 2일, 조계종이 최근 입법예고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대종결사 회원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종단의 새로운 변화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에 따라 승려노후복지기금 적립과 이를 통한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계획에 대해 큰 기대를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종결사 스님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전명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종결사는 종단의 승려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일체의 사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어린이 청소년 신도증 나와

조계종 “종단 최초로 전용 신도증 제작”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조계종 신도증이 발급된다.



어린이 신도증.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은 6월 2일, “어린이·청소년 집중포교 3년차를 맞아 종단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전용 신도증을 제작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어린이·청소년 신도증을 제하고 오계를 수지한 어린이·청소년에 한해 6월 12일까지 통합접수할 수 있다. (02)22011-1903

마곡사 ‘금품 수수’ 심리 연기

마곡사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된 심리가 연기됐다.

조계종 재심회계원장 법등은 5월 27일 제49차 심판부를 개설했다.

이날 심판부는 마곡사 주지 법등 스님을 비롯해 대광·대일·대관 스님이 신청한 연기요청을 수용해 심리를 연기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안양 수리사 재

산을 매각하면서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성건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또 제주 관음사와의 채무관계로 징계회부원 시령·현공스님에 대해 각각 제적과 멸빈을, 타종단과의 이종승적으로 징계회부원 일공 스님은 공권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동섭 기자

“불교의례 연구로 부처님 본래 정신 살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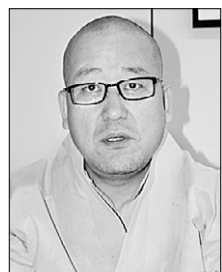
청매의례문화연구원 사단법인 설립 허가

5월 25일 청매의례문화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원장 미등·조계종 기획국장, 이하 연구원은 법인 허가를 시작으로 대중적 불교의례 연구에 매진할 포부를 밝혔다.

미등 스님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인데, 수행은 의례로 구성돼 있다”며 “불가(佛家)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화장실 가는

동안 도어는 순간 의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불사 위주의 의례만 의례로 인식되는 풍토가



미등 스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의례의 정신과 사상을 살리는 것”이라며 “의례의 대중성만 확보되면 포교는 저절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불교의례의 의미와 상징구조 등을 밝히는 한편, 불교의례를 목록화해 대중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경봉대종사 제27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청정납자로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고

한국불교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기신 경봉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올해로 27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극락호국선원 경봉문도회에서는 커다란 나무처럼 대승을 자애로 감싸며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베푸셨던 경봉대종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귀한 발걸음 하시어 큰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53(2009)년 6월 19일 (음 5.27)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전

내용 | 경봉대종사 27주기 추모법회

2009학년도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문의 | (055) 382-7083

극락호국선원장 명정 경봉문도회장 원산 신도회장 정홍준 합장

2009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09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4명
학사과정	30명
통도사강원	8명
선원	3개소
을원	1개소

경봉대종사 제27주기 추모법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봉행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추모법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명

경봉문도회 제5회 정기 총회

추모법회 봉행 후 오후 1시 극락암 무량수전에서 열립니다.

